

금융 양대산맥 협업 채널 구축

국민연금 · 한국금융투자협회,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과 한국금융투자협회(협회장 권용원, 이하 금투협)는 30일 전주혁신도시 국민연금 본사에서 '국민연금과 금융투자협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권용원 금투협 회장 등 양측 대표자들과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서명석 유안타증권 대표, 조흥재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전영복 삼성자산운용 대표 등 업계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공동 관심분야 논의와 정보교류, 국내·외 금융투자 확대, 공단과 협회 회원사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협업 채널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융 전문인력 양

성 등에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세부 논의는 향후 실무협의회에서 이뤄진다.

김성주 이사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큰 기동이라 할 수 있는 공단과 금투협이 함께 협력을 다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 평가하고 금융시장 발전과 기금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벤처, 해외 대체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율리 SK증권 전북혁신도시 프론티어 오피스 설치와 SSBT 전주사무소 개소 일정을 전했다.

SK증권 전주사무소 설치에 국내 금융기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의 첫 사례로 의미가 매우 크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 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권용원 금투협 회장은 "자본시장에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30일 전주혁신도시 국민연금 본사에서 '국민연금과 금융투자협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 우호적인 정책 환경 속에서 국민연금과 금융투자협계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미래혁신기획단장은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전주지사 설치와 관련해 "현재 13개 자산운용사 등과 접촉중인데, 3곳과 가시적으로 지사 설치를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전북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30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위원장 이계문)와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서민·취약 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금융상담 연계 프로세스를 고도화하여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1금융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사간 연계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전북은행의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금리 감면을 통해 채무경감 효과를 볼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용택 전북은행장은 "그간 서민금융을 위해 어느 은행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이 전북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전북은행 따뜻한금융클리닉에서 시행중인 서민 대상 부채관리시스템이 인상적이다"며 "이번 협약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전북은행 간의 협력체계가 진일보된 사례로, 서민 및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지원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김윤상기자

여름철 폭염 시 수박 · 가공식품 구입 증가

외식 · 배달음식 비중도 높아져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무더위 및 농식품 관련 빅데이터 키워드를 분석해 폭염 시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유형을 30일 발표했다.

폭염 발생 시 수박, 생식이 가능한 신선채소, 닭고기, 가공식품 등의 구입액이 증가했다. 구입 장소는 대형마트, 온라인 등 실내를 선호했으며, 외식 및 배달음식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더위던 2018에 폭염일 수(7~8월, 33°C이상)는 서울 기준 2017년 12

일에서 18년 35일로 증가했다. 폭염 시 농작물피해 관련보도가 증가했고, 식중독, 보양식 등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폭염 시(33°C이상) 구매 품목을 보면 수박, 포도, 삼채소 등 신선농산물과 닭고기의 가구당 구입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장소는 폭염 시 더위를 피하면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염이 발생하면 외식하는 비율과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비율은 11.1% 증가하고, 지출액

도 5.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달음식 이용비율은 12.3%, 지출액은 4.1% 증가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1,144명의 2018년 7, 8월 농식품 구매데이터를 대상으로 했으며 기상청 폭염 기준인 33°C 이상인 날과 미만인 날의 품목별 구입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농촌진흥청 우수농산물관리사업과장은 "여름철 건강관리용 식품수요가 증가하여 단기간 소비변화 맞춤형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며, "폭염 시 구매처 변화에 따른 농가 출하전력과 간편식을 추구하는 소비패턴 변화에 맞춘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NH올원5늘도적금' 출시 · 이벤트 실시

우대금리 · 현금 · 포인트 제공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매일 자동이체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전용 금융상품인 'NH올원5늘도적금'을 최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NH올원5늘도적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매일 저축 가능한 적금이라는 의미로, 계좌별 월 70만원 한도, 매회 1천원 이상 10만원 이내(매일 자동이체 금액은 1천원 이상 3만원 이내 원 단위)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고, 1인당 3계좌까지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6개월 단

일 상품이다. 올원뱅크, NH스마트뱅킹 앱으로 신규가입 가능하고, 영업점 창구에서도 해지가 가능하며, 퇴근시간(평일 18:00~24:00 또는 휴일) 후 가입시 0.1%, 가입기간 중 매일 자동이체 횟수 60회 이상시 0.3%, 만기 저축 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0.1%, 300만원 이상일 경우 0.2%의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고 0.6%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전부 총축 시 7월 29일 기준 최고금리는 2.06%이다.

상품 출시를 기념해 '술일봉 이벤트 1탄'으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 'NH올원5늘도적금'을 가입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133명을 추첨해 1등 현금 2백만

원(1명), 2등 NH멤버스 50만 포인트(2명), 3등 NH멤버스 30만 포인트(10명), 4등 NH멤버스 10만 포인트(20명), 5등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기프트콘(100명)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NH올원5늘도적금'을 가입하고 자동이체횟수(60회, 30회, 20회, 10회)를 달성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113명을 추첨해 여행상품권(13명)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기프트콘(100명)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장근 본부장은 "간편함과 자유로운 저축 기능을 갖춘 'NH올원5늘도적금' 상품을 통해 우대금리와 함께 건강한 저축 습관을 기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더운 여름 스마트하게 일하자'

이스타항공, 혹서기 대비 건강한 업무환경 만들어 야외근로자 위해 포도당 · 콜토시 · 비타민C 등 제공

이스타항공이 항공 교통 이용량이 증가하는 성수기 기간을 맞이해 야외근로자 혹서기 대비 건강관리와 함께 전 요일 자율복장을 도입하고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만들어 간다.

이스타항공은 30일부터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경구식염포도당, 콜토시, 비타민C 등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 키트를 구성하여 야외근로자들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비, 지점, 케이터링 등에 사내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 건강관리 상담과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야외근로자들은 성수기를 맞아 업무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폭염 속에서 근무해야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스타항공은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통해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오는 8월 1일부터 '스마트캐주얼(Smart Casual)'을 시행한다.

스마트 캐주얼이란 기존 매주 금요일마다 시행됐던 '캐주얼 프라이데이(Casual Friday)'를 전 요일로 확대 시행하는 자율 복장 제도다. 전 요일 자율 복장을 통해 임직원 조직만족도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무더운 여름을 맞아 유연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조직문화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항공업계 특성상 7, 8월 성수기에 업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와 업무 효율향상을 위해 근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가고 있다"며,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자율복장제도를 통해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만들어 성수기 항공이용 고객들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전북중기청, '수탁 · 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 지원

실태조사면제 ·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 부여 등 우대 혜택 제공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표준약정서 발급, 현금성 결제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2018년 수탁·위탁거래 실적에 실적 있는 위탁기업으로 '2018년 위탁거래액이 20%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또한,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중기청은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은 공평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총 74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상생과 공존의 시대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지역에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이 많이 신청하여 공평거래 문화확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수기업 선정에 희망하는 기업은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는 전북지방청 홈페이지(www.mss.go.kr/jeonbuk)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소상공인팀 안세웅 주무관(063-210-6439)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